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6: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약 5천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서서 이 말씀으로 무리에게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청할 때에, 그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는 또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진리를 말씀하셨다. 첫째로 그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둘째로 그는 아버지께

서 그에게 주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셋째로 그는 그에게 오는 자 곧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심

첫째로,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떡과 밥은 생명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빵이나 밥을 먹어야 산다. 우리는 살려면 빵이나 밥을 먹어야 한다.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지고 계속 먹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께서는 육신의 생명이 되는 떡 혹은 빵을 비유로 사용하셨다.

세상에는 죽음이 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성경은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영혼의 죽음을 말하고 또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지우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 죽음은 다 한 원인의 결과이다. 그것은 죄라는 원인이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사람은 죄 때문에 몸도 죽고 영혼도 죽고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에도 던지우는 것이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원수이다. 인간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다. 사람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먹고,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일하며 운동도 한다. 그러나 죽음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다가온다. 어떤 때는 어린 아기도 죽는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죽음은 사람에게 가장 큰 원수이지만, 사람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 죽음은 돈으로도 현대 의학으로도 극복할 수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바로 죽음의 반대이다. 몸의 죽음은 물론이고 영혼의 죽음, 영육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반대되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서는 본래 사람을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살아 계시는 생명이시다. 성경에 의하면, 죽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받는 벌이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죽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주실 수 있고 그는 그 길을 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는 영생의 길이시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39-40에서 하나님의 뜻은 부활과 영생임을 증거하셨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범죄하며 죽을 운명에 처한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곧 생명의 길이시다. 그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경은 그것을 ‘속죄’라고 부른다. 요한복음 6:53-55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 ‘인자’(人子)라는 말로 즐겨 부르셨다. 그가 이 본문에서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언급한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찢으실 그의 살과 흘리실 그의 피를 가리킨다. 그것은 그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킨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의 속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의 뜻이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생에 이를 것을 말한다.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요한복음 3:16의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멸망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다. 요한일서 5:11-13,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며 그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디도서 1:1-3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영생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이며 그것이 전도자가 전하는 중요한 내용임을 증거하였다. 예수께서 바로 그 영생의 떡이시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표현은 선택의 진리를 보인다.

예수께서는 후에 믿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

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그는 ‘내 양’이라고 부르셨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의 양이 아니므로 그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선택의 진리를 밝히 가르친다. 사도행전 13:48에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볼 때 그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택함받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예수께로 나올 것이다.

선택의 진리는 에베소서 1:4-5에 잘 증거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였다. 그는 선택의 시점과 목적을 밝히 증거하였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곧 만세 전에 선택된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 진리는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며 그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죄사함받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영생할 것이라는 진리를 내포한다.

예수께 오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오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셨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

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들은 그를 믿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는 그에게 오는 자들을 결코 내어쫓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를 믿는 자들만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 곧 만세 전에 선택된 자들이다.

요한복음 6:53-55에 보면, 예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믿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성찬식에서 표현된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는 의식이다. 우리는 그 의식에 주께서 친히 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속죄를 믿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아는가? 하나님의 뜻은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며 이 영생을 위해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것은 그의 입으로 친히 증거된 진리이며 그의 기적들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친히 입증된 진리이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모든 말씀이 다 진리임을 입증하셨다. 여러분은 성경에 증거된 그의 말씀들과 증거들을 통해 그를 바로 아는가?

교만과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예수께로 나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으라.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으라. 속죄신앙을 가지라.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닫고 그를 믿으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천국에서 복된 영생을 누릴 것이다.